비교문화연구 제 9 집 2 호, (2003) pp.157-193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주요개념〉 외국인 이주노동자, 아프리카 이주노동자, 재현(representation), 타자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1)]

한건수*

1. 들어가는 글

이주노동은 국가와 지역간에 일자리를 구할 기회와 임금의 격차가 있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현상이다. 전지구화의 물결은 자본과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주노동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02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62만 9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수는 36만명, 밀입국자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약 40만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한국의 경제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변화도 촉진하고 있다.

농수산업에서부터 제조업, 도매업과 서비스 산업에 걸친 외국인 이주노동자[2)]의 등장은 한국경제와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일

---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1) 본 논문은 한국문화인류학회와 한국사회학회 공동 심포지움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당시 토론자였던 정기선 선생과 초고 작성에 조언을 준 설동훈 선생에게 감사한다. 제출된 원고를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2)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가 국적에 의한 구분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

상과 문화에까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나인 노동자가 돌본 양계장의 닭과 계란, 나이지리아 노동자가 껍질을 까고 세척한 마늘이 주방에 공급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이 만든 조리대와 식탁위에서, 조선족 여성이 아침식사를 준비한다. 스리랑카와 네팔의 여성 노동자들이 만든 학용품으로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 몇몇 지역의 학교 교실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로 공부를 하고 있다.[3)]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일터를 중심으로 특정 국가나 민족 중심의 집단 거주지를 형성했다. 조선족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서울의 가리봉동이나 나이지리아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해방촌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4)]' 이나 파주와 포천

에서 국내 시민운동가들과 학자들은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 노동자들도 불법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함의를 피하기 위해 미등록노동자(nonregistered worker)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재현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와 '불법체류노동자' 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일반적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려 한다.

3)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녀들은 미등록노동자들이 관광이나 단기방문 사증을 통해 처음 입국할 때 동반했거나, 친지 방문, 브로커를 통해 입국시킨 경우이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 브로커를 통해 본국의 친척에게 보내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아동들은 몽골인이 대부분이다.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설동훈 · 한건수 · 이란주(2003)의 조사가 있다.

4)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일대는 인근의 시화 및 안산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안산시와 함께 원곡동 일대를 '국경 없는 마을' 로 지정하고 지역주민들과 이주노동자 간의 공존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박천웅 2002).

일대의 소규모 공단지역은 다양한 민족 집단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에서는 한국인들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동네 골목을 함께 청소하는 행사나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증가는 '코시안(Korean과 Asian의 합성어) 가족'과 같은 새로운 다문화가족을 등장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에서부터 귀화한 이주노동자나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국민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문제를 제기한다. 단일혈통과 공통의 언어를 민족 또는 국민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 온 한국인들로 하여금 피부색과 언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같은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정체성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사회에 등장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재현되어 왔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난과 굶주림을 피해온 불쌍한 노동자, 한국의 법률을 어기고 입국한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 한민족의 혈통을 오염시키거나 범죄와 질병의 온상 등의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 낯선 나라로 노동이주를 선택하고 실천한 다양한 국적과 인종, 연령의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주체를 인정받지 못한 채 한국사회가 규정하는 객체, 하나의 타자로 수렴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모습을 한국사회에서 재현되고 있는 유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본론

1)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도입과 한국사회의 변화

한국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70 년대까지 노동력을 송출해 온 전형적인 인력송출국 중의 하나였다. 노동력의 송출국으로서 이주노동을 바라봐야 했던 한국이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국이 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 한국은 노동력 수출국에서 완전히 노동력 수입국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노동력을 미국과 일본 등지로 송출하고 있으면서 저임금과 사양산업의 업종에 인력을 수입하는 양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 자체가 고임금의 노동시장과 저임금의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산업에서의 인력부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이혜경 1994; 설동훈 1996; 석현호 2003).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해외에 투자한 국내기업들이 현지에서 고용한 인력들을 국내에 들여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유입된 것은 그 이전의 일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이 관광이다 단기 방문 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1992년 중국과의 국교 수립은 중국교포(조선족)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길을 열어주었고,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시작된 건설경기의 과잉은 조선족 동포들이 건설부분의 대체 인력으로 등장하게 했다(설동훈 1996: 71). 한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체계적인 노동시장분석과 정책에 의해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기업,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임금경쟁력에 뒤처진 기업들의 수요와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서 무분별하게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2년 정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변화하는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학생의 신분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이었기에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게 되었다. 외국인을 노동자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기본 원칙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산업연수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황에 따라 임기방편 식의 대응을 해 온 실패한 정책을 남발해 왔다(설동훈 2001).

2)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신분

(1) 이주노동자의 현황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2003년 8월 현재 4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3년 2월의 노동부 자료에서는 전체 외국인 이주노동자 367,158명중에 78%에 해당하는 287,808명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불법체류 노동자(미등록노동자)'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96개국에서 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중국(한족과 조선족 포함),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몽골 등이 주요한 노동력 송출국으로 드러났다.

2003년 7월의 고용허가제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연수생 뿐이다. 소위 불법체류자인 미등록노동자들의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은 산업연수제의 제도적 모순과 한계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설동훈 2001; 정귀순 2003). 막대한 비용을 내고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노동자(미등록노동자)들 보다 낮은 연수생의 임금을 받고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평균 미화 3,815 달러를 지불한다. 특히 한국계 산업연수생들(주로 조선족)은 7,266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설동훈 · 최홍엽 · 한건수 2002: 55). 현지 브로커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

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때로 사기를 당하며 한국에 온 산업연수생들은 비록 불법체류 신분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불법 신분인 미등록 노동자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을 알게 된 연수생들은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연수업체를 이탈해서 불법체류 노동자로 살기 시작한다.

(2)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한국 내 신분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은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받은 체류자격과 관련되어 구분되고 있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크게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과 '불법체류노동자'(취업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입국했거나 체류기간이나 자격을 어기고 취업한 이주노동자)들로 구분된다. 이들은 "불법체류노동자"라는 용어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삶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관례대로 "미등록노동자"로 부르자는 주장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으나, 정부와 일반 시민들에게는 '불법체류노동자'로 인식되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입국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보완성의 원칙"하에 외국인들의 취업입국을 허락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3년 7월 고용허가제가 입법되기 전에,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해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특정직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만 취업자격을 부여해 왔다(설동훈 2002: 51).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단순기술 직종에는 외국인들이 합법적인 노동자 신분으로 취업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단순기술 직종에 "근로자(노동자)"가 아닌 "산업연수생(학생)"의 신분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명목상 "고용"이 아닌 "연수(또는 교육)과정"으로 일하게 했다. 이 정책은 정상적인 고용계약이 아닌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수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직장이동의 자유를 구속한 상황에서 일하게 했다. 이 연수

제도가 인권 침해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일자 1998년 4월 정부는 2년간의 연수를 마친 연수생들이 1년간 근로자 자격으로 취업할 수 있는 "2+1" 제도를 도입했고, 2002년 4월부터 1년간의 연수기간을 마친 근로자가 2년간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는 "1+2"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제도에서 취업하는 연수생들은 기존 연수업체에서 근무해야 하고, 근무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산업연수제도의 연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연수생을 제외한 단순직종의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인 미등록노동자들이다. 미등록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후 배정 받은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연수 기간이 끝났음에도 ±告므舊\ 않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취업자격이 없는 사증으로 입국하거나 밀입국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연수생들은 임금의 차이 때문에 대부분 이탈하고 있다. 연수생들은 다른 미등록노동자들에 비해 절반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기도 했는데(설동훈 1999), 1999년 조사에서는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생들은 기본급 34만원에 수당과 복리비를 합쳐 60만원대의 월급을 받았다(설동훈 2001: 57). 실제 산업연수제가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연수업체에서 지불하는 임금이 다른 한국인 노동자나 일반 업체에 취업해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비해 이처럼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또한 연수생이라는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업체를 이탈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수생들의 일상과 자유가 속박되거나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많이 보고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할 기회조차 없는 국가의 노동자들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관광이나 상용방문과 같은 사증을 받고 입국한다. 한국정부가 산업연수생 쿼터를 배분해 온 기준은 국가간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선심성 결정이었기 때문에, 실제 산업연수생은 아시아권 국가들에만 배정되어 왔다. 따라서 아프리카나 중동, 남미 권의 이주노동

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산업연수생으로 취업할 수 있는 국가에서도 한국으로의 노동이주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중국의 경우, 밀입국이나 취업자격이 없는 사증으로 입국하는 수가 많다. 2000년 12월 기준으로 미등록노동자들의 입국 자격을 보면, 75%가 사업이나 관광 방문을 명분으로 하는 단기사증으로 입국했다. 산업연수생에서 이탈하거나 연수기간이 끝난 후 귀국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전체 미등록노동자의 20.9%를 차지하고 있다(설동훈 2002: 64).

(3) 여성이주노동자와 한국사회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중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997년 말 법무부자료에서는 31%정도였으나 2002년 10월의 법무부 통계에서는 총 336,955명의 국내 외국인노동자 중 117,785명이 여성노동자로 약 35%에 달하고 있다. 2002년의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여성노동자는 중국, 태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서로 숫자가 많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주노동자 집단은 중국으로 조선족은 47%, 한족의 경우 44%가 여성이다. 몽골도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45%이며, 태국 38%, 필리핀 34%, 베트남 33%, 인도네시아 20%이다(설동훈 · 최홍엽 · 한건수 2002: 11). 인도네시아는 여성노동자의 숫자가 많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외국인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집단별로 다른 직종에 집중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조선족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식당, 여관, 가정부와 같은 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높다. 실제 1997년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사에서 실제 조사대상 여성노동자 중 조선족 여성노동자가 전체 조사 대상의 14%에 불과해 상당수 조선족 여성들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지기도 했다(석현호 · 이혜경 2003: 75). 이에 반해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의 아시아권 여성들은 제조업에 취업해 있다. 특

기할 사항은 러시아나 구소련에 속하는 CIS(독립국가연합) 국가 출신의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존재이다. 이들은 대부분 예술흥행 사증(E-6)이나 관광사증으로 입국해서 주한 미군의 주둔지 근처인 기지촌이나 한국인을 고객으로 하는 유흥업소에 취업하고 있다. 기지촌 유흥업소에는 필리핀 여성과 러시아 여성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한국인을 고객으로 하는 업소에는 러시아나 CIS 국가 출신의 백인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다. 조선족 여성이 내국인을 위한 서비스업에, 필리핀 여성이 미군을 상대로 하는 유흥업소에 집중되는 것은 한국어와 영어라는 언어능력과 연관되어 있지만, 러시아나 CIS 국가 출신의 백인여성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업소에 집중되는 것은 백인이라는 인종적 특질과 관련이 있다(Cheng 2000; 김현미 2001; 설동훈 · 한건수 · 김현미 · Yea 2003).

실제 국내에 취업한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직종 분포 -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등지의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공장에 취업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조선족 여성들은 서비스업에, 러시아와 CIS 국가 출신의 백인 여성들은 유흥산업에 분포되어 있는 - 나, 아프리카권의 여성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되고 있는 실태는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패턴과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3.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의 재현(representation)

1) "노동자 아닌 노동자": 연수생 또는 불법체류자

2003년 7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미등록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들일뿐 한국정부로부터 아무런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다. 산업연수생 역시 국내법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

로자(노동자)"가 아니라 연수생이었을 뿐이다. 연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때마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도 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다.

한국정부가 연수제도를 고집한 배경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국내법에 의해 보장받는 기본권들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기업주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을 "기술과 기능의 습득"을 위한 학습과정으로 오도하고,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을 "연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연수제도를 지지해 왔다(유명기 2000: 162). 폭행당한 동료 때문에 집단으로 항의한 필리핀 연수생들을 보며, 한국인 감독자가 연수받으러 왔으면 돈을 내고 와야지 돈을 받으면서 무슨 데모냐는 반응(유명기 1997: 74)을 하는 것은 '연수생'이라는 신분이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어떻게 악용되는 가를 볼 수 있다.

연수생이라는 신분을 갖게 된 이주노동자는 결국 작업장에서는 노동자로 존재하되 작업장 밖에서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적" 성격(유명기 1997: 72)의 존재양식을 갖고 살아온 것이다. 산업연수생들은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의 신분이고, 미등록노동자들은 정당한 기본권을 갖고 있는 노동자가 아니리 "불법체류자"인 것이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체불을 항의한 미등록노동자를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라며 경찰에 신고해 버리는 일처럼 미등록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현실을 가져왔다(김해성 2002: 158-159). 실제 필자가 면접한 서아프리카의 말리 출신 노동자는 자신의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밀린 임금을 항의조차 못하고 스스로 포기해 버리기도 했다.

지금까지 일은 한 30번 옮겼어요. 처음에 인천에 가서 반달 일했어요. 사장님이 "일 고만해!" 그러고 돈 100원도 안 줬어요. 다시 여기 쉼터에 와서 있다가 이틀 후에 수원에 갔어요. 반달 일했어요. 사장님이 "일 고만해!" 그리고 돈 안 줬어요. 돈 달라고 하니까 "개새꺄! 안 줘! 돈 없어 임마! 나가!" 그렇게 나쁘게 말했어요. 나 비자(visa) 없어요. 싸우면 안돼요. 30번 일하면서 돈 받은 데는 6-7개 밖에 안돼요. 돈 안주면 빨리 옮겨야 돼요. 오래 있어도 돈 안줘요. … 한국여자 친구 생기면 문제 생겨요. 한국 사람들 화내요. 비자 없으니까 문제 생기면 안돼요." (말리 출신 28세 남성 이주노동자[5])

불법체류라는 신분은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이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추방을 받을 때 일정기간 보호되는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필자가 면접한 한 조선족 노동자는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항의하다가 사장과 그 아들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자신의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자 경찰서에서 사장을 훈방하고 자신을 출입국관리소로 넘겼다고 진술했다(설동훈 · 최홍엽 · 한건수 2002: 109).

2) "기아를 피해 온 난민 또는 노예": 가난한 나라의 최하층 일꾼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일반적 인식은 가난과 굶주림을 피해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들로 보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신들을 가난한 나라에서 굶주림을 피해 온 난민으로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이다. 섬유공장에

---

5) 말리 출신 이주노동자와의 면접은 2002년 12월 8일 경기도 봉담에서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한국어를 말할 줄 하는 말리와 세네갈 출신 노동자가 옆에서 도움을 주었다. 이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국내거주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서 연수생으로 일하고 있는 20대의 젊은 조선족 여성 노동자에게 한국인 매점 주인의 다음과 같은 "덕담"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 너거들(너희들) 못사는 데 있다가 한국 오니까 정말 좋제? 중국에서 살라몬(살려면) 얼마나 답답했겠노. 이 공장은 다른 데보다 사람들이 다 좋아. 너거는 운이 좋은 편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너거 불쌍하다고 하나라도 잘해줄라 하지 해꼬지할라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거도 애먹이지 말고 잘 해야 한다. 그래야 돈 많이 벌어가서 잘 살지……(유명기 2002: 20).

중국의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이들이 중국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액수와 한국에서의 임금 차이만큼 서열화 되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작업장 내에서의 생활에도 반영된다. 필자가 조사한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모든 한국인들은 다 자신들의 상사처럼 행동한다고 불평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상사나 동료들이 시키는 일도 해야 한다고 한다. 작업장에서 가장 힘든 일은 늘 자신들의 몫이라고 불평한다. 작업장에서 가장 늦게 까지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인 것이 당연시 되는 작업장 분위기이다.

이주노동자의 본국과 한국에서의 임금 수준의 차이를 아는 한국인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본국의 임금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아프리카의 전통 무용수들을 고용한 업주가 미화 $200에 임금을 계약한 후, 공연 외에 업소의 잡일을 시키거나 폐가 수준의 주거환경을 제공했다가 이주노동자를 상담하는 인권단체에 의해 인권침해의 사례로 공론화된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 경우 고용주는 아프리카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을 기준으로 미화 $200이라는 임금이 아프리카 본국에서는 최상급의 대우였기 때문에 한국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6)]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의 경제 수준 때문에라도 한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국에서는 그나마 생각도 못하는 큰 돈을 벌지 않느냐는 한국인들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 존 받는 거 달라요. 오래 일해도 새로 온 한국 사람이 더 많이 받고 일도 편한 거 해요. 나보다 늦게 와서 일 배운 한국 사람이 힘든 일은 꼭 나를 시켜요. 공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나쁜 일 있으면 나만 하게 해요. 한국 사람은 늦게 와서 쉬운 일해도 나보다 두배 많이 받아요(말리 출신 28세 남성, 미등록노동자).

가난한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을 그 나라의 경제수준으로 평가하고 서열화 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연수생 선발 경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대구 비산공단 내 한 염색공장)의 스리랑카 현지 법인에서 나온 한국인 시험관이 웃옷을 벗기고 한 사람씩 입을 벌리게 하여 치아상태를 훑어본 다음, 손으로 어깨나 팔꿈치를 세게 눌러 보았다. 시험은 그것뿐이었다. 나중에 보니 그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비명을 지른 사람은 다 떨어졌다. 산업기술 연수생을 뽑는다더니 이상한 시험도 있구나 생각했다(유명기 1995: 69-70).

노예무역을 다루는 영화에서 노예시장의 구매자가 보여주는 장면

---

6) 이 사건은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으로 청원되어 조정위에 회부되었으나 해당 업주가 이주노동자 인권센터를 형사 고발함으로써 검찰조사로 넘어갔다. 필자가 파악한 정황은 법률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으로 이 글에서는 면접 자료를 통해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양쪽의 입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http://migrant114.org/cote.htm http://www.africanvillage.co.kr/africanvillage.htm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이다.

3) "부정한 존재 또는 오염의 근원"

많은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특히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사회를 오염시키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된다. 오염의 내용은 글자 그대로의 병리학적 의미에서부터 사회병리의 원인 모두를 포함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밀입국한 멕시코 인들을 연구한 챠베즈(Chavez 1992: 116)는 밀입국 이주노동자들이 거처로 삼은 야산의 노천 주거지가 이민국 직원이 아닌 보건국 직원들에 의해 철거된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들에게 부여된 오염의 이미지를 분석한 바 있다.

경기도 ○○리에서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의 쉼터를 운영해 온 김영두 목사도 동일한 경험을 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리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아프리카인들의 쉼터를 운영하자 동네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시커먼 흑인"들이 무리 지어 다니는 것이 동네 부녀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화장실이 부족해서 노동자들이 야외에서 자주 소변을 보는 등 공중위생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지는 주민들의 항의에도 비닐하우스 쉼터를 운영하던 김목사는 결국 해당 관청에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불법체류 노동자"를 보호하는 시설 때문이 아니라 화훼용 비닐하우|봇Y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며 교회로 사용하는 등 도시계획법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철거를 요구 받았다. 해당 관청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쉼터를 다른 명분으로 제재하지 못하다가 주민들이 부녀자의 안전과 공중위생을 더럽힌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이주노동자 쉼터를 처벌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말리에서 온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언론 매체가 아프리카를 AIDS와 가난, 질병으로만 묘사하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은 언론의 영향으로 아프리카인들을 모두 가난하거나 AIDS에 걸린 환자로만

생각한다고 했다.

> 버스나 지하철 타면 한국 사람들이 피해요. 옆에 자리가 있어도 한국 사람들 안 앉아요. ○○가는 1번 버스 탔을 때 버스 기사가 "내려!" 그랬어요. 어떤 버스 기사는 차를 못 타게 해요. 냄새난다고 못 타게 해요. 어떤 버스 기사는 자기 뒷자리에 앉으면 다른 자리로 가래요. 냄새난다고. 어떤 버스 기사는 향수 같은 거 나한테 뿌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AIDS 걸린 줄 알아요. 한국 티비에서 아프리카 AIDS 많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피해요. 한국 사람들 까만 사람 싫어해요. 가난해서 한국 왔다고 싫어해요(말리 출신 28세 남성 이주노동자, 경기도 봉담).

2003년 9월 1일 서울시내 '윤락 1번지'로 인식되어 온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이 매출이 급감하자 '외국인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Foreigner's off-limits place)'라는 대형 플랭카드를 이 지역 출입구 9곳에 내걸었다. 업주들이 자체결의에 따라 이러한 플랭카드를 내건 이유는 2001년 이후 3개월 주기의 단속 때마다 외국인 노동자의 아지트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SARS(중증급성호흡기질환)'와 'AIDS' 감염의 온상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병을 전파하는 오염의 근원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지목한 것이다(연합뉴스 2003년 9월 16일).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에 생리적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 질병도 가져오는 오염의 근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 이주노동자들은 전문적인 외국인 범죄조직과 구분되지 않고 집합적으로 범죄의 온상으로 비춰진다(이욱정 2000: 83). 이태원을 무대로 활동하는 나이지리아인 마약 밀매 조직이 한국인 여성을 '공짜 여행'으로 유인해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운송책으로 활용한 사건이 여러 차례 보도[7]되면서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인들이 집단으로 범죄자의 이미지로 재현된다. 신문기사는 나이지리아 마약 밀매조직이 한국 여성을 포섭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인은 500명이 넘으며 이 중 여러 명이 마약밀매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동아일보 2003년 3월 3일). 이 기사의 논조는 국내의 불법체류 나이지리아인의 숫자를 추정하여 밝힘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마약밀매와 관련시켜 보도함으로써 전체 나이지리아 노동자들을 범죄와 연결시킨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한국인과의 결혼은 보수적인 한국인들로 하여금 혈통의 순수성이 오염되고 있다는 우려를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 외국인들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맡아 보는 한 공무원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다.

> 중동 사람들 신체조건 때문에 한국 여자들이 빠져 들면 헤어나지 못해요. 혼혈아들이 본국으로 가지도 못해요. [한국여성과 혼인한 외국인 노동자들 중] 중혼도 많지요. 싱글[single]인 상태서 우리 집 딸들을 데려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가나 사람들 질이 안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후손을 낳으면, 갈 길이 뻔해요. 범죄자 되는 거에요. 결혼을 하면, 우리 관습대로 당신 나라에 데리고 가서 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지 못해요. 요즘엔 남녀평등이라 그러지 못해요. 통계상으로도 늘어나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단순하게 인권문제로만 검토할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생기는 큰 문제로 봐야 해요[8]

---

7) "한국여성 이용 마약운반 나이지리아인 셋 구속," 문화일보 2002년 12월 27일. "마약 운반책 활동 한국여서 10명 외국교도소 수감," 동아일보 2003년 3월 3일.

8) 출입국 업부 관련 공무원(60대 초반), 2002년 12월 10ㅇ리 면접.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를 용인하는 것은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혈통을 오염시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함을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못사는 나라에서 온 후진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들이 문제가 있으며, 이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열등인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한민족의 혈통의 순수성과 우월성을 오염시키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4) 인종질서의 서열화: 사회적 인종관이 한국인의 인종주의

한국에서 일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피부색에 근거해서 자신들을 차별한다는 사실을 지적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크레파스 회사들이 '살색'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을 했다. '살색'이라는 용어는 한국인의 피부색만을 살색으로 인정하는 암묵적인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인종관은 피부색에 근거한 서열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대체로 백인들에 비해 피부색이 검은 동남아시아인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이 낮은 지위를 갖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상담하는 활동가들은 피부색이 흰 중동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나 고용주에 의해 폭행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 피부색이 검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자들이 폭행당하는 빈도가 높음을 보고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폭행 사례를 단순히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대부분 중동지역 출신 노동자들이 신체적으로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에 비해 건장하기 때문에 폭행을 덜 당한다는 설명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부색이 검은 노동자들이 인종적으로 더 멸시받는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다.

피부색이 검은 인종에 비해 백인이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는 한국인의 인종 서열은 어디에서 기인할 것일까?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

나 적어도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다른 인종을 만나기 시작한 개화기의 신문기사에 등장한 인종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인종 서열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

> 구라파 사람들은 가족이 희고 털이 명쥬실갓치 곱고 얼골이 분명하게 생겻스며 코가 바르고 눈이 크고 확실하게 박엿슷며 동양인종은 가족이 누르고 털이 검고 거세며 눈이 기우러지게 박엿스며 니가 밧그로 두드러지게 낫스며 흑인종들은 가족이 검으며 털이 양의 털갓치 곱실곱실하며 턱이 내밀며 코가 넙적하고 … 백인종은 오늘날 세계 인종중에 데일 영민하고 부지런하고 담대한고로 왼 텬하각국에 모다 퍼져서 하등인종들을 이긴다(제국신문 1900. 5. 26; 유선영 1997: 96에서 재인용)

1900년에 보도된 이 신문기사를 보면 한국인들이 다른 인종을 접하게 된 시작부터 신체적 특질을 당시의 국력과 기술발전의 정도를 통해 해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백인을 설명하는 용어들 - "털이 명주실갓치 곱고 얼골이 분명 … 코가 바르고 눈이 크고 확실"- 과 흑인이나 동양 인종에 대한 묘사 - "검고 거세며 … 기우러지게" -를 비교해 보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구라파의 국력과 앞선 기술력이 백인의 신체적 특징을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인종질서가 작업현장에서 구체적인 차별로 나타나는 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은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관계에서 표현된다. 10년 이상 한 업체에서 일한 방글라데시인 노동자는 능숙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다른 한국인들과의 관계도 좋으며, 사장의 신임도 받고 있음에도 작업장 내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갖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사장이나 공장장의 신임을 받더라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피부색이 검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에서 온 "외국인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유명기 2002: 25-26).

함한희(1995)는 이주노동자와의 만남에서 관찰되는 한국인들의 인

종관이 생물학적 인종개념이 아닌 사회적 · 문화적 인종개념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을 인터뷰 할 때, 이들이 이주노동자들이 교육수준이 높고 일정한 소양을 갖추고 있어 일을 빨리 배운다는 등의 호의적인 평가를 하다가도 이주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이 화제가 되면 이주노동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욱정(1994: 114)의 연구에서도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이미지와 담론이 자본주의 부정적 측면을 은폐하는데 동원되고 있음이 ■린ㅓ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공고화되고 있는 백인 시각의 인종주의적 담론은 한국의 자본주의 전개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값싼 임금을 합리화시키고 이들을 열등한 인종으로 공식화하는 수단으로 해석된다(함한희 1995: 213).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인종개념을 '생물학적 인종' 개념으로만 설명하기 힘든 이유는 한국 사회에 등장한 '이상한 백인'의 인종 서열에서도 확인된다. 중앙아시아 출신의 백인계 이주노동자들이나 러시아에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 남미의 유럽계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발전된 한국의 경제력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백인에 대한 인종적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이지리아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미국인이라 소개하면 한국인들이 훨씬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같은 흑인이라도 미국이라는 국력과 경제력이 인종적 위계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시켜 준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의 인종개념은 생물학적 특징에 근거한 인종분류와 해당 국가나 사회의 경제력이나 국력을 고려한 사회문화적 인종 서열의 도식이 다시 적용되어 형성된 차별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인종별로 차별화된 한국사회의 인종관념은 한 인종에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특성을 부여한다. 영어는 백인들의 언어와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영어가 공용어인 가나에서 영어교사를 했던 코피(Kofi)는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었으나 자리

를 얻지 못했다. 아프리카인이 영어를 가르친다면[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코피에게 관심을 보인 영어 교육기관은 전화를 통한 회화연습을 주로 해주는 업체였다. 면접을 하러 온 고용주는 필자에게 얼굴을 보지 않고 국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값싼" 아프리카 출신 영어 선생을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영문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명문대학에 유학중인 인도인 여성도 공식적으로 영어 강의를 할 수 없다. 원어민 강사로 취업하기 위한 자격 조건에 인도는 영어가 국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도인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황일도 2001; 박노자 2002: 155 에서 재인용).

3) 외국인 노동자의 자아정체성: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 재현되는 이주노동자의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들이 과연 앞에서 살펴본 모습 그대일까? 이 절에서는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자아정체성과 한국사회에서의 생활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제까지 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사회문화적 연구들은 대부분 아시아권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욱정(1994, 2000), 유명기(1995, 2000. 2002), 박충환(1994), 함한희(1995) 등의 인류학적 연구가 방글라데시, 필리핀, 조선족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혜경 · 정기선 · 강수돌 · 설동훈 · 석현호(1998), 석현호 · 정기선 · 장준오(1998), 석현호 · 정기선 · 이정환 · 이혜경 · 강수돌(2003), 박경태(2001) 등의 사회학적 연구 역시 아시아권 노동자를 대상으로 행해졌다. 기존의 사회문화적 연구들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고용주나 동료와의 인간관계나 갈등구조, 적응 양상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 장에서는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낯선 한국사회와 문화에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주체적 삶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 내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은 2002년 3월의 자진신고 기준으로

2,272명으로 집계되었다. 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아시아권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합법적인 이주노동의 기회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거의 전원이 불법체류신분인 이들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도 많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1997년의 경제위기 직전, 아프리카의 이주노동자 수가 4,000 여명까지 증가했던 것을 참조하면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의 수는 현재 최소한 2,500명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출입국관리연보에 나타나는 아프리카인의 입국자와 출국자 수를 통해 파악되는 국내체류 아프리카인의 수는 등록된 이주노동자의 수보다 많은 상황이고, 이들 대부분이 미등록노동자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한 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국적은 28개국에 달하고 있다. 주로 나이지리아(1,067명)와 가나(647명) 출신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Han 2003).

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1990년대 초부터 가나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온 김영두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원목수입선을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 온 두 명의 가나인이 출국하지 않고 인천 부두에서 하역노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프리카인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출현한 계기가 되었다. 나이지리아인들은 한국으로 무역을 하러 입국한 나이지리아 상인들과 나이지리아와 무역을 하던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관광이나 상용 사증으로 입국해 일한 것이 시초이다. 1990년대 중반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계기는 이미 입국해서 이주노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노동자들이 한국의 중고차를 가나와 나이지리아로 수입해 간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폐차장에서 구입한 중고차들을 수입해 갔고, 이들이 구입해 간 중고차들이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자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이 많은 돈을 벌게 해 줄

것이라는 Korean Dream이 시작된 것이다. 중고차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상품 수입은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경쟁이 늘면서 한국의 상품에 대한 다양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본국에서 팔릴 만한 물건들을 다양하게 구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태원의 나이지리아나 가나인이 운영하는 작은 무역상 사무실에는 고무 슬리퍼에서부터 악세사리, 자동차 부품에 이르는 다양한 물건들이 샘플로 전시되어 있다. 본국에서 온 무역상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상품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다. 본국으로 귀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무역상들의 구매 대리인이 되어 '합법적'으로 재입국하기도 한다.

이점에서 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아시아권 이주노동자들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들의 대부분은 임금 수입을 위한 노동이주 자체보다는 자신들이나 가족의 사업, 또는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 임금 수입을 위한 작업장 내의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사업이나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사업에 필요한 한국 상품을 조사하고 구매하여 본국으로 보내는데 많은 여가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단순한 노동자로 여기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을 노동자라기보다는 무역에 종사하거나 장래의 사업을 개척하는 기업가(entrepreneur)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한국에 입국할 때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와 같은 사회적 연망(social network)을 동원해서 자본을 모은다. 때로 다른 국가에 가서 이주노동을 하고 있는 형제도 현금을 지원한다. 가나와 나이지리아 노동자들에게 "컨테이너를 만드는(making container)" 일은 한국에서 번 돈을 본국에 송금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필자가 면담한 한 가나 노동자는 3년간 한국에서 일하면서 4개의 컨테이너를 만들어 보냈다. 40 피트 길이의 컨테이너를 만들

때, 중고차 4대를 구입하는 데 4백만 원, 필요한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는데 6백만 원을 지불했다. 가나 노동자들은 평균 컨테이너 하나를 만드는데 12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가나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마련하기도 하고, 미국이나 유럽에 노동이주를 한 형제가 한국으로 송금해서 자기 몫의 투자를 하기도 한다. 때로는 한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일정 부분을 투자하거나 지원하고 가나에 있는 가족들이 해당 금액을 받기도 한다(Han 2003: 167). 나이지리아 노동자인 바톨로메(Batolome)는 한국에서 6년간 일하면서 틈틈이 컴퓨터를 배웠고, 자신이 한국에서 번 돈으로 컴퓨터와 필요한 비품들을 구입해서 귀국한 후 라고스에서 컴퓨터 학원을 열었다. 귀국인사차 필자를 만난 바톨로메는 자신의 한국 체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내가 1997년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내게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었어요. 전에, 내가, 나이지리아에 있었을 때 나는 눈앞에 닥친 삶에만 급급했어요(short vision). 하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은 내게 보다 넓은 삶의 비전을 보여주었고, 산업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Han 2003: 168).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하게 되면 직장 선택의 기준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자신의 장래를 위한 훈련이 가능한 곳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상담소나 종교기관에서 여는 컴퓨터 반에 관심이 많고, 실제 자원 활동가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한다.

아프리카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가 재현해 내는 이주노동자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그들은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편견이나 임금체불과 인권침해와 같은 여러 형태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무기력한 희생자와 피

해자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노동자들은 임금이 체불될 때 두 달 이상을 기다리지 않는다. 한국인 고용주들의 말을 믿고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직장을 옮김으로써 자신들의 피해를 줄인다. 실제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의 이직은 일손이 필요한 고용주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임금을 체불하지 않게 하는 압력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또한 적극적으로 파업에 가담하기도 한다. 2002년 1월의 아모르 가구의 파업현장[9]에서 파업이전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몇몇 나이지리아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 나이지리아 노동자들을 통해 임금지급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임금 지급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괴성을 지르며 울부짖고 바닥을 구르는 행동을 통해 애초의 협상에서는 제외된 자신들의 임금을 받아내기도 했다(이란주 2003: 255-256).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상담소를 활용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네트웍을 통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나 노동자들은 국내에 '가나교민회'를 결성했고 본국으로 귀국한 이들은 '한-가나 협회'를 만들었다. 숫자가 많고 출신 지역이나 민족이 다양한 나이지리아인들은 "나이지리아상인회" 같은 세분화된 결사체를 만들기도 한다. 나이지리아나 가나처럼 숫자가 많지 않고 불어권이며 동시에 이슬람권인 다른 서아프리카권의 4개국(말리, 버키나파소, 세네갈, 아이보리코스트) 출신 노동자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 이슬람교로부터의 지원이 여의치 않자 전략적으로 가톨릭의 이태리인 신부를 자신들의 후원자로 의지하고 있다.

---

9) 2002년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93명의 '불법체류노동자(미등록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 9개국 출신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이 파업에 5명의 나이지리아인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3. 타자 만들기: 사회적 약자, 타자로서의 이주노동자

>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체를 통해 타자를 알게 된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타자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알게 되기도 한다(Tzvetan Todorov 1982: 241).

한국사회가 재현해 내는 이주노동자의 이미지와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 모습은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를 통해 볼 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제한되어 있다. 이들의 일상은 "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만 있을 뿐이라는 표현을 알 수 있듯이 작업장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접할 기회가 적다. 이런 점에서 한국인들에게 이주노동자는 "상상적 관념"으로 존재한다는 분석은 의미가 있다(유명기 2002: 16).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 이주노동자는 한국인들에게 관념적 타자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본 대로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처한 경제 환경 속에서 국제노동이주라는 적극적 선택을 한 삶의 주체로 인정받는 대신, 노동자로서의 신분도 부정되며, 빈곤과 오염의 낙인 하에 사회적 인종개념에 따라 인종적 위계가 지워지는 수동적 존재로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재현은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사회의 타자로 만드는 작업으로 수렴되고 있다.

최근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소개하고 이들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코너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이주노동자와는 차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언론의 관

심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나 산재를 당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이거나 외국인 범죄와 같은 사회적 병리의 원인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로만 그려져 왔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한 가족의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또는 아들과 딸이라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이들이 번 임금은 고향에 두고 온 아들이나 딸의 등록금이 되기도 하고 늙은 부모의 병원비가 되기도 한다. 이들의 고생을 통해 고향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주노동자들이 고국에 있는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들이 주체적 인간으로 자신과 가족, 공동체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감동을 받은 시청자들의 의견이 넘쳐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인기와 호의적 평가는 다른 각도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32억 아시아인을 하나로 잇는 휴먼 프로젝트,"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힘! 세계 속의 한국!! 성숙한 대한민국을 위한 〈박수홍 · 윤정수의 아시아! 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었다!"와 같은 구호로 무장한 이 프로그램이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를 보자.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은 크게 한국사회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온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내용은, 30년 전 중동에 일하러 간 남편과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녹음테이프에 정성스레 녹음했었던 사람들의 그리움과 아픔을 되살린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떠나온 이주노동자가 어느덧 다 커

버린 딸의 영상을 보며 흘리는 눈물은 임금체불과 폭행과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만든 한국인의 죄의식과 부채의식을 자극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와 일상에서 유리된,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을 "국경을 넘나드는 감동의 대서사시"로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가 갖고 있는 질곡을 모두 걷어내는 반성과 성찰로 인도한다. 실제 방송이 나간 후 이주노동자 상담기관의 회원 가입률이 갑자기 증가하기도 했다.[10] 주변에서 한번도 이주노동자를 보지 못한 시민들이 "못 사는 나라의 불쌍한" 이주노동자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현실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관념적 타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한국사회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노동자가 아니라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되는 "불쌍한 타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상담하는 상담소나 종교 기관[11] 역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생존 실태를 고발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당면과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피해와 고통을 주로 알리게 된다. 이주노동자를 상담해 온 단체의 소식지나 이주노동자 백서(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2000, 2001;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2001)는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고 개 … 권狗경犭 의도에서 발행되지만 부수적으로 "희생자" 또는 "피해자"로서 이주노동자를 타자화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이주노동자와 부딪치며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또 다른 성원들은 이주노동자를 다른 의미에서 타자로 만들고 있다. 필자가 조사 중에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공장 주변의

10) 부천외국인노동자 모임 카페 게시판, 글번호 731, www.cafe.daum.net/bmwh

1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2000년에 118개의 단체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00). 설동훈(2003)은 2003년 조사에서 15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인들과 서울에 사는 한국인들은 다른 종류의 한국인이라는 말을 한다. 서울에서 접하는 이해관계에 관련되지 않은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호의적이고 도와주려 하지만, 같은 공장이나 숙소주변의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끊임없이 차별하고 무시한다는 것이다. 직장 야유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한국인 동료가 네팔인 이주노동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괴롭힌 사례는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처한 최하층의 지위를 보여준다(함한희 1995: 216). 이주노동자는 직장 내의 한국인 직원이라면 누구나 무시하고 명령하거나 화풀이를 할 수 있는 최하층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차별의 피해자들이 그 사회의 차별 가치를 내면화하여 또 다른 약자에게 차별과 억압을 행사하는 "복합차별"(上野千鶴子 1996; 유명기 2000에서 재인용)이며 사회의 약자가 자신보다 더 약한 집단과 자신을 차별화함으로써 자신의 우위를 확립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 역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Willis 1977; 유명기 2002에서 재인용)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한 소규모 선반업체 사장은 자신이 고용한 가나인 노동자들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헤쳐 온 역경을 얘기했다.

> 내가 강원도 횡성에서 국민학교만 마치고 서울로 와서 선반공 시다로 일하기 시작했어. 우리 때 휴일이 어디 있었나. 박정희 시대에 첫째 일요일 겨우 놀고, 전두환 시대에 첫째, 셋째 놀고, 노태우 때부터 일요일에 놀게 되었지. 박정희 시대에 나는 공장 다락에서 베니어 판 깔고 잤어. 근데 얘들은 잘해줘야 돼. 숙소, 가스레인지, 가스, 전기, 물 다 대줘야 돼. 화장지, 비누, 지네는 먹는 거 외에는 들어가는 거 없어. 한 달에 한 번 치킨 사놓고 소주도 한 잔 해야 하고. 나 이제 겨우 독립해서 공장 하는데, 얘네들은 좀 너무해. 밥값, 야간 수당 다 올려줬는데, ……, 서운하지! 〔월급서〕100원만 빠져도 다른 데로 간데. 얘네들 가면 우리 기계 못 돌려. 문 닫아야 돼. (박○○ 사장, 40세, 경기도 일산)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거나 이들을 고용한 한국인들은 많은 경우 한국사회와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역경을 헤쳐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가난을 피해 돈벌러 온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이 겪어 온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환경임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쳐 온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삶이 자신들보다 어려운 국가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과거의 자신들보다 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판단은 많은 작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필자는 이주노동자들이 당한 폭행의 정황이 한국인 동료나 고용주의 분노의 폭발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야근이 끝나갈 무렵 만취한 고용주나 한국인 동료가 느닷없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 이주노동자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폭행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은 왜 자신들이 폭행의 대상이 되었는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설동훈 · 최홍엽 · 한건수 2002: 257-258).

> 1997년에 신포에서 일할 때, 토요일 밤에 야간 일하면 12시에 끝나. 한 번은 11시 57분에 기계를 스톱하고 총소하기 시작했어. 그때 사장님이 술 먹고 들어와서 왜 일찍 끝내냐고 파이프 들고 나를 끌고 나갔어요. 같이 일하던 다른 아프리카 사람이 따라 나와서 사장님 잡고 빌었어.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빌었어. 반 달치 돈 37만원 받아야 하는데 그냥 안 받고 공장 나왔어(말리 출신 28세 남성 이주노동자, 경기도 봉담).

한국사회와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모순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인들에 의해 타자화 되면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 또한 이주노동자들을 자신들의

타자로 만들어내면서 현실의 모순을 회피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4. 글을 나오며

한국 사회의 중요한 생산직 노동자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재현되는 양식을 분석해 보았다.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한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경제적 목적에서 국경을 넘는 노동 이주를 결정하고 실천한 사람들이다. 국제노동이주라는 결정은 이주노동자들의 행위주체성(agency)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해 주는 것이다. 수많은 난관을 해쳐나가며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단행한 이주노동자 바톨로메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영하의 추위와 낯선 언어, 문화, 음식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갔다. 가족과 떨어져 보낸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를 통해 습득한 정보화 사회의 비전을 나이지리아에서 컴퓨터 학원을 여는 것으로 구체화시킨 그는 한국사회에서 "불법체류자,"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 "마약사범," "한국사회에 해를 끼치는 질 나쁜 오염의 근원," "AIDS 보균자"인 "나이지리아인"일 뿐이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재현은 다양한 목적에서 "타자"를 필요로 한 한국사회의 욕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전쟁과 빈곤을 극복하면서 수많은 역경을 거쳐 온 한국인들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시켜주며 현재의 성취감을 충족시켜 주는 "타자"였다. 또한 한국사회가 선택하고 성취한 빈곤 문제의 해결, 노동 통제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어야 할 "타자"가 될 것을 요구 받기도 했다. 가난을 극복하려면 자신이 거쳐 온 역경을 동일하게 감내해야 할 외국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과거 고통을 기준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를 결정한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온정적' 태도와 관심을

받아주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주노동자들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상실한 도덕적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대상으로서 만들어 지기도 했다. 일상생활에서 이주노동자와 대면할 기회가 없는 한국인들이 방송과 언론에 소개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와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한국사회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측정하는 "타자"로 등장한 것이다.

공적인 영역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 전까지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와 "연수생"이라는 기형적 신분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의 타자화는 한국사회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모두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함께 만들어 낸 기형적 산물이었다.

참고문헌

김현미

2001 "글로벌 사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인가?" 『진보평론』 7호: 71-96.

김해성

2002 "제발 때리지 마세요!" 윤수종 편, 『다르게 사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이야기』, 서울: 이학사.

박경태

2001 "노동력 송출국에서 본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연결망: 필리핀의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13: 26-48.

박노자

2002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외노(外勞)인가 외노(外奴)인가?" 『아웃사이더』 9: 138-157.

박천응

2002 『국경없는 마을과 다문화 공동체』, 안산: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충환

1994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문화접촉에 관한 연구: 작업장내 비형식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석현호

2003 "외국인 노동자 연구의 배경과 설계," 석현호, 정기선 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지식마당.

석현호 · 이혜경

2003 "외국인 노동자 특성과 이주과정," 석현호, 정기선 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지식마당.

석현호 · 정기선 · 이정환 · 이혜경 · 강수돌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지식마당.

석현호 · 정기선 · 장준오
1998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서울: 집문당.

설동훈
1996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한국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대책," 『신학사상』 113: 49-75.
2002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18: 53-68.
2003 『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서울: 한국국제노동재단.

설동훈 · 최홍엽 · 한건수
2002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설동훈 · 한건수 · 이란주
2003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설동훈 · 한건수 · 김현미 · Sallie Yea
2003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서울: 여성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 서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서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2001『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서울: 청년의사.

유명기
1995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구조," 『녹색평론』 21: 69-82.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노동문제논집』13집: 69-98.
2000 "한국의 '제3국인', 외국인 노동자," 임지현 외, 『우리 안의 파시즘』, 서울: 삼인.
2002 "외국인 노동자,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미래," 『당대비평』18: 12-35.

유선영
1997 "황색 식민지의 문화정체성: 아메리카나이즈드 모더니티," 『언론과 사회』 18: 81-122.

이란주
2003『말해요, 찬드라』, 서울: 삶이보이는창.

이욱정
1994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와 적응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0 "외국인 노동자: 편견과 저항," 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서울: 또 하나의 문화.

이혜경
1994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연구," 『한국사회학』 28: 89-113.

이혜경 · 정기선 · 강수돌 · 설동훈 · 석현호
1998『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정귀순
2003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삶: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기억과 전망』 통권3호: 179-198.

장미진 · 김규원 · 설동훈
2002 『외국연예인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00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주소록』,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함한희
1995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 『한국문화인류학』 28: 199-221.

Chavez, Leo R.
1992 *Shadowed Lives: Undocumented Immigrants in American Society*. Fort Worth: Harcourt Brace Jonanovich College Publishers.

Cheng, Sea-Ling
2000 "Assuming Manhood: Prostitution and Patriotic Passions in Korea," *East Asia: An International Quarterly* 18(4): 42-78.

Han, Geon-Soo
2003 "African Migrant Workers' Views of Korean People and Culture" *Korea Journal* 43(1): 154-173.

Todorov, Tzvetan
1982 The Conquest of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신문자료
황일도
2001 "제3세계 유학생들 차별의 땅 코리아" 『주간동아』 2001년 6월 21일

동아일보
2003년 3월 3일 "마약 운반책 활동 한국여성 10명 외국교도소 수감"

문화일보

2003년 12월 27일 "한국여성 이용 마약운반 나이지리아인 셋 구속"

연합뉴스

2003년 9월 16일 "윤락가 '외국노동자 출입금지' 논란: 미아리 텍사스 매출 급감에 자체 결의"

인터넷 자료

www.cafe.daum.net/bmwh

http://migrant114.org/cote.htm

http://www.africanvillage.co.kr/africanvillage.htm

〈Key concepts〉: african migrant worker, representation other, racial order

Making Other: Representation of Foreign Migrant Workers in Korea

Geon-Soo Han

This paper explores the representation of foreign migrant workers in Korea. They are represented with various images such as 'industrial trainees' or 'illegal residents' ; 'refugees or slaves escaping from famine'; 'source of pollution or impure being.' These stereotyped representations influence on the Korean people's attitude toward foreign migrant workers in everyday life. Racial hierarchy applied on migrant workers has been constructed not only through biological racial categories but also socio-cultural stereotypes based on material wealth or national power.

This paper illustrates African migrant workers life and compare it with 'stereotyped representation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analyzes how these representations of foreign migrant workers have been us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other' in Korean society. Foreign migrant workers are imagined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self image' of Korean people who has overcome economic poverty and the ruins of war within a generation. As an concluding analysis, this paper explains the way of representing foreign migrant workers in terms of making otherness in Korean society.